

# 이 유

## 1.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의 주장

- 2015년 10월 2일부터 0000 4차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어 2018년 8월 25일까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밤에 켜놓은 불빛과 소음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2015년 10월 12일에 조합장 부인이 서명을 받아갔음
- 계속 참고 기다리던 중에 2018년 4월 9일에 조합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8년 7월 18일 대우 측 관리과장이 합의를 보여주어서 20~30명 정도 모여 대우건설 측과 설명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2014년 8월 20일부터 4년째 거주중인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합의서이므로 본인과 가족은 2015년 2월부터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함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당 현장은 서울시 00구 00동 30-20번지 일대 000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2015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임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
- 현장 주변에 학교 3곳과 다수의 아파트가 존재하여 현장 개설 초기부터 주변 이해관계자에게 당 현장의 공사 진행 계획을 비롯한 투명한 안전/환경 관리 방안을 적극 설명하고자 여러 번의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주자분들이 원하

시는 일자와 장소에 시공설명회를 개최(2015년 7/23) 하였으며, 아울러 추가로 시공설명회를 원하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당 현장의 일별 작업사항을 공사안내전광판에 매일 반영하였고, 주간 공사 현황 자료도 매주 월요일 관리사무실 이메일로 전송하였음

- 당 현장은 도심지 공사임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해 주변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의 저감 활동을 시행하였음
- 현장 방진/방음벽을 사업시행인가 조건인 6M보다 상향하여 8M로 시공 및 공사를 하지 않아도 최근 몇 년간 황사 및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당 현장의 공사로 인해 먼지 농도가 심해 졌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현장 초기부터 미세먼지농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나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였음
- 소음측정시스템을 현장 웬스에 2개소 설치하였고 소음 유발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소음측정기로 학교 및 아파트에서 수치 확인 및 당 현장이 2개 구역으로 분리되어 세륜기를 2개소로 운영하였고 자동 안개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하였음
- 현장 내부에는 각 구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운영하여 분진 발생에 적극 대응하였고 근로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 교육을 시행하여 소음/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였음
- 골조공사 진행시 레미콘 타설 과정에서 이동식 방음벽을 펌프카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였고,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였음
- 소음 및 분진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00구청으로부터 모범공사장으로 지정되었고,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점검을 받았으나 점검결과가 양호하여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음

- 공사 진행 중 당 현장의 발주처인 000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0000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호간에 합의서(주요 합의내용은 각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소음, 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임)를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접하였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000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별다른 민원을 접수받지 못하였음
- 당 현장 조정 및 내부 마감공사 중인 2018년 7/18 신청인과 신청인의 사위가 현장에 방문하셔서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가 응대하였으며, 주요 방문 사유는 반포현대 보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위함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접한 바가 없고 별도의 민원 제기가 없어 현장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보상진행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음
- 이에 신청인이 귀 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귀 위원회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한 바 귀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바임

## 2.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현황

- 신청인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에 지하철9호선 00역, 00초, 00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00대로(왕복8차선)와 접하고 있어 도로교통소음 등으로 인하여 정온한 환경은 아님

### 나. 신청인 거주 아파트 현황

- 위 치 : 00구 00대로 310-4
- 아파트명 : 00현대아파트(80세대)
- 규 모 : 지상 10층(연면적 : 8399.37㎡)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사용승인 : 1987.10.21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 사 명 : 000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규 모 : 지하3층 지상35층(8개동 764세대)
- 연 면 적 : 132,132 $m^2$  (대지면적 27,429.5 $m^2$ )
- 공사기간 : 2015.10.5.~ 2018.9.30
- 시 공 사 : (주)00건설
- 시 행 자 : 000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공사장소 : 00구 00동 30-20번지 일대

####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

- 관할 구청(환경과)에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등의 피해민원이 20차례 제기되어 소음저감 등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음

###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가. 소음·진동 피해 평가**

- 현지조사와 신청인 면담 그리고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신축공사 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을 바탕으로 각 공정별로 주요 소음원인 건설장비의 투입일수를 산출하며, 공정별로 투입된 건설장비의 소음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2016. 12' 자료를 활용함
-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높이 8M 높이의 방음벽에 의한 신청인 주택(4층) 창문 밖까지의 삽입손실은 9.6dB(A)을 적용함

## 나. 진동 피해 평가

- 진동레벨이 가장 높은 장비는 항타기이며, 항타기 진동으로 인한 신청인 거주지의 진동도를 추산하면  $VL = 75.7 - 20\log(32/5)^{0.75} = 63.6 \text{ dB(V)}$ 로 평가됨

## 다. 먼지 피해 평가

- 피신청인이 방음벽과 방진막, 살수시설, 출입구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 하였으며, 공사중에 바람의 세기·방향 등 대기의 흐름이나 조건에 따라 비산먼지가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로 인해 정신적·건강상·물질적 피해를 입 었을 개연성이 인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라. 빛공해 평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설치한 조명기구는 해당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4. 판 단

-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신청인 거주지의 위치에 따라 최대 소음도가 75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최대 10dB(A)을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거주지에서 진동도 예측결과, 64dB(V)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V) 이하로 평가되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한 점을 고려해

불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건강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축물에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가 아니므로 빛공해에 의한 피해는 평가하지 않는다.

## 5. 배상수준 검토

###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를 초과한 신청인 000 등 3명에게 배상한다.
- 신청인중 공사기간에 직장인인 000, 000은 피해기간 및 시간의 정도를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50%를 적용한다,

###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510,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4,520원을 추가하여 합계 1,514,520원이다.

## 6.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